

# 국제화시대의 지혜

權 燦

<외무부 국제관계자문대사>

세계를 여행해 보노라면 아직도 문명의 사각지대인 오지도 많다. 외교관의 해외 포스트에는 소위 3대 지옥도 존재하고 있다. 세계의 오지와 벽지에는 국제화 개념은 지극히 생소하다.

이처럼 국제화의 길은 쉽지 않다. 국제화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이는 꼭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국제화는 인간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화의 개념이 세계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참여, 선진문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뜻한다면 국제화는 생활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세상사를 보는 우리의 눈은 낡고 고루한 민족주의의 시각에서 벗어나, 21세기 국경없는 시대를 지향하면서 항구적인 세계평화 달성과 인류공동체 시민에 대한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인간애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위대성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 이상을 영원히 추구하는데 있다. 현실은 비록 추하나 높은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데서 인간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 아닌가. 아름다움에의 인식과 추구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또 삶에 화려함을 그리고 살 맛을 준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난 8월 釜山市의 친선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시민들의 국제화의 식과 생활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중국에 대한 재발견의 과정에서 크게 인상받은 3가지가 있다. 이들은 중국인의 국제화의 진행사항에 대해 필자의 뇌리에 가장 큰 동요를 준 것들이다.

첫째 중국인의 2중 화폐 구조였다. 중국시민이 사용하는 인민폐가 따로 있고, 또 외국인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교환, 사용토록하는 외국인 전용 Fec 화폐가 있다. 이 두가지의 화폐는 모양도 다르거니와 가치도 달랐다. 달러와 교환조건도 달라서, 행여 외국인이 인민폐를 모르고 사용했을

때는 Fec 화폐의 가치보다 16% 낮게 계산되었다. 中國 이외 대부분의 나라에서 2중구조의 화폐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을 정도이다.

두번째는 중국인의 높은 문화유산 보전의식이 인상적이었다. 영화 “The Last Emperor”의 배경인 자금성의 보전관리 상태는 어느 선진국 못지 않았고, 北京의 만리장성은 중국인의 큰 프라이드로써 애지중지하는 모습이였다. 전 세계에서 연간 1백만명의 관람객이 모인다고 했다. 우리 사절단을 안내하는 중국관리들은 만리장성까지 신속 안전하게 안내해서 신명나게 과거 역사를 설명하고 환한 미소와 자부심을 내보였다.

자금성을 관람하고 나오는 데 바다같이 큰 인공호수가 있었는데, 옛날 청나라 황제의 해군함대 작전지휘소였음을 자랑했다. 수백년전 그들 조상들의 흔이 깃든 발자취를 그대로 보존하는 모습이 우리의 마음에 강하게 와 닿았다.

세번째는 중국관리들의 절도있는 외교의전(Protocol)과 국제감각(Global Mind)이 크게 돋보였다. 세련된 영어와 한국어의 구사는 중국국민들의 높은 국제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상해시와의 자매결연 조인식때의 의전절차와 기자회견 준비상태, 만찬식의 좌석배치와 의전 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태였다.

이상의 3가지에 대한 큰 인상은 우리 사절단 대표들을 흐뭇하게 해 주었고, 특히 釜山市의 국제화 計劃에 심취해 있는 필자에게는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가치있는 경험이었다. 중국인의 세련된 매너와 숙련된 어학능력은 필시 외무성 사무관들이 부산시 사절단을 위해 특별히 동원되었으려니 착각했다. 필자는 외무성관리가 아니고서야 30여년동안 교류가 없었던 인접국 국민들의 심리를 이렇게도 꿰뚫어보고 행사의전이며, 시찰프로그램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까하고 의아했다.

이데올로기 문제로 폐쇄된 길만을 건다가 등소평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국제화에 눈을 뜬 그들, 국제화만이 세계경쟁에 낙오하지 않는 길임을 깨달았음에 틀림없다. 上海市는 이미 24개국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으니 釜山의 7개 자매시 보다는 대 선배도시였다. 上海市는 인접국 일본의 오오사카市와의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일을 벌써 준비하고 있었다.

몇년전 필자가 유럽 그리스에 출장을 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나라도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의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었다. 우선 호텔비와 음식값이 너무 저렴하여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한국의 호텔비와 음식값은 세계평균수준이상이고 아마도 東京 다음으로 제일 비싼 곳이 아닌가 싶다. 그러한 이유로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이나 釜山보다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현상이다. 국제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본다.

또 日本人의 국제화의식을 소개하면 보다 흥미롭고 우리의 내면이 더 크게 보인다. 필자가 일본 지역에 근무할 때인데 본국의 훈령사항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日本人의 각종단체에 초청되어 행사 참석과 연설 등을 수행하기에 더욱 바빴던 기억이 난다. 日本 상공인들의 초청으로 한국의 무역정책, 對日本觀에 대해 설명해야 했고, 라이온즈클럽 등 시민단체 대회에 참석, 한·일간 친선증진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다. 日本의 이계바나클럽은 명칭부터 국제화를 표방하고 가는 곳마다 국제 이계바나 협회이고, 또 이 대회에는 韓國총영사의 참석을 정례화했기 때문에 필자는 늘 주변으로 참석,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입장에 있었다.

또 지역 방송국, 언론과의 대담요청도 많았기 때문에 이는 선별적으로 응해야 했다. 20여년의 외교관 생활중 일본지역 근무가 제일 바빴던 기억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욱 바쁜 생활이지만 日本人만큼 외국사절들에 대해 신경을 쓰고 철저히 활용(?)하는 나라도 드물다. 일본인들은 온 국민이 거의 필사적으로 국제화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선진 부강국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국제화의 성취가 인간 삶의 질을 높여주고 선진 복지국의 길을 열어 준다면 우리는 국제화의 길을 재촉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를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물을 보는 시각과 접근방식을 180도로 전환해서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문제만 해도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주변국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우리 祖國의 허리가 두 동강이 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변 4대강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는 식의 당위성만 강조해 온 것이 우리의 종래 사고방식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분노를 발산시키는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국토통일을 성취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는 국제정치의 역학과 냉엄한 현실을 너무나도 이해 못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사회에는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은 무시되기 일수이고,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의는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대국에 대해 역사의 책임을 묻는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의 절실한 통일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지극한 공을 드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4대강국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문호가 열린 중국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법과 사고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中國은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아직도 한손으로는 과거의 혈맹인 북한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적어도 외교적인 측면에서 볼때 韓·中 양국관계는 단순한 무역고의 수치로만 가늠하고 평가해서는 안되는 대단히 중요한 인접국인 것이다.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南·北 韓 대화만 충실히 해 나간다면 통일이 자동적으로 오려니 생각한다면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독일 통일의 교훈에서도 볼 수 있듯이 東獨이 무너져 내려 앉은 주 이유는 그들을 혈맹으로 오랫동안 감싸주었던 소련이 잡은 손을 놓아버리니까 東獨의 경제가 저절로 붕괴된 결과였다.

한편 西獨은 東獨을 철수하는 소련군을 위하여 군사원조금을 지불하는 등 환심을 쌓고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다.

또한 西獨은 유럽안보를 위해 자국내에 주둔한 美國軍의 경비일체를 부담했고, 제2차대전후 계속 친미정책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덕으로 동독이 무너져 흡수통합하는 과정에서 英國, 프랑스가 극력 반대하고 나온 국제정치 상황에서 美國이 주변국들을 설득시켜 통독의 길이 완성된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주변 4대강국이 겉으로는 태연하지만 통일의 가능성이 무르익는 상황이 오면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주변 이해당사국들에게 총력 外交를 강행하고 지극한 공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對 러시아 30억불 차관공여 문제도 보다 큰 아량을 갖고 러시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경협에 성의를 보여야 하고, 그들의 이자 상환문제도 빚을 독촉하기 보다는 천천히 갚으라고 전국민이 우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독일주재 한국대사로서 당시 통독의 과정을 지켜 보셨던 申東元 대사님의 지론은 더욱 호소력이 있었다. 즉 강대국 러시아에 대해 한국이 짧은 기간일지라도 채권국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은 韓國 역사상 초유의 일로써 전국민이 다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니냐고.

사실 비슷한 일이지만 일본에 대해서도 정신대 문제로 보상운운할게 아니라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국민들의 참회속에 진정한 우정의 꽃이 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인내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통일과 국제화를 연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 통일의 성취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공을 기울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진정 통일의 열쇠는 워싱턴과 北京에 있음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범국민적인 노력과 사고의 대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

에너지는 알뜰하게 절약은 꾸준하게